

일상을 쌓아 시대를 쓰는 일

EBS <한국기행>의 '노포' 이야기

김다정

들어가며

하늘을 날고, 절대 다치지 않고, 괴력을 소유한 초능력자의 스토리가 OTT에서 끝없이 스트리밍된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부모 또한 초능력을 가졌으나 각자의 사정에 의해 돈가스와 치킨을 팔고, 슈퍼마켓을 하는 자영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초능력자도 결국 자영업자로 회귀해 생업을 걱정한다는 설정은, 자영업자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는 않으나 뛰어난 그날 이후로 매일의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 그러나 올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10만 건의 폐업이 예상¹되면서, 벼랑 끝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현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

제가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을까. 자영업에 도전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아직’ 자영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 모두가 생업을 찾아 포화 상태의 도시로 점점 더 모이고, 그 덕에 치솟는 부동산은 또다시 누군가를 쫓아내는 골레. 쫓고 쫓기면서도 각자도생이 공정의 제1원칙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마음 한편에 불안이 쌓인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군가의 안온한 일상을 담담하게 탐구하는 방송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한가한 소리 혹은 현실성 없는 동화 속 세계로 비칠 수 있다. 그러한 우려 속에도, 통계라는 숫자만이 우리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각자의 서사로써 위로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곳이 휴먼 다큐멘터리의 자리다.

EBS <한국기행>은 여행기의 성격을 띠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노포’ 시리즈는 5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가 그곳의 일상과 여러 사정을 취재한다. 취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그 서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60년 된 이발소로 시작한 촬영 팀의 기행은 영사기사가 있는 오래된 극장까지 이어진다. 동네에 있다면 쉽게 지나칠 법한 행색의 가게들의 문을 기어코 두드리고, 그 안에 녹아든다.

1 KBS 뉴스,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예상”(2023. 10.15).

1.5배로 흘러보내도 무방한 콘텐츠의 범람, 그래도 꼭꼭 씹어 먹고 싶은 방송은 있다

“노포에 식당만 있는 건 아냐.”

〈한국기행〉은 최근 콘텐츠의 경향성에 반박이라도 하듯, 노포 하면 으레 떠오르는 식당이 아니라 이발소라는 콘텐츠로 시리즈를 시작한다. 맛집을 기대한 시청자는 새삼 머쓱해진다. 원하던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기를 그만둘 수도 있으나, 끈이어 들려오는 제작진의 멘트가 귀에 꽂혀 단숨에 방송에 빠져들었다. “아버님, 여기 지금 영업하는 데예요?” 60년 동안 가게의 문을 열어온 당사자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지만, 가게의 외관을 처음 본 이방인들에겐 합리적인 궁금증이다. 사장님은 다른 말 대신 웃음으로 답하며 가게 안으로 안내한다. 화면이 전환되고 세월이 멈춘 듯한 공간이 드러난다. 분명 낡았어도 단정하게 정리된 곳. 오랜 세월을 얼마나 애정을 들여 닦아온 공간인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도파민의 분출을 노리는 고자극의 콘텐츠가 범람하는 OTT 플랫폼. 1.25배에서 1.5배의 속도로 재생하며 영상들을 해치우는 데는 무리가 없는 시대. 그러나 잘 다린 가운을 입는 모습,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가위를 가는 모습, 옛 도구로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는 모습을 제 속도대로 보고 있자니 자율신경세포가 제자리를 찾은 듯 심장 박동이 잔잔해진다. 그렇게 다섯 노포의 이야기들을 정갈한 밥상을 마주한 것처럼 꼭꼭 씹어서 보았다.

미디어와 사람의 감정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미디어 심리학에 따르면, 본래 미디어를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심리적 중용에 있다. 지루함

을 느낄 때에는 스펙터클한 영화를, 정신없는 일과를 보낸 사람은 잔잔한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최적의 평온한 적응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² 그러나 현실 속 우리는 하루를 보상이라도 하듯 매일매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콘텐츠를 찾는다. 지상파와 케이블, OTT 할 것 없이 자극을 홍보하는 사이 늘어난 자극량에 무더지고 감정은 경화되어 간다. 자극의 범람 속, 한국 기행의 서사와 무해한 연출은 오히려 평온의 향상성을 환기하는 자극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노포 이야기, 인스타그램에는 없는 연결의 가치를 조명하다

노포가 소환되는 시대가 다시 오긴 했다. 최근 노포라는 단어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인스타그램에 #노포를 검색하면 해시태그 결과값이 8.7만, #노포맛집은 7.5만에 달한다(2023년 10월 기준). 이렇듯 ‘노포 감성’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출현으로 이를 다루는 콘텐츠나 방송 프로그램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EBS 〈한국기행〉이 가진 차별점은 어디에 있을까.

고도화된 서비스의 시대에서 잠깐의 불편은 오히려 특별함으로 느껴지고, 여기에 ‘노포 감성’이라는 이름값이 붙는다. 그러나 〈한국기행〉은 노포의 존재적 의미를 특별함이 아닌 일상에서 찾는다. 멀게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IMF와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곧 생존의 비결이다. 노포엔 불안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꿰뚫히게 버텨낸 사람

2 나은영, 『미디어심리학』(한나래, 2010), 18~31쪽.

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국기행〉은 ‘노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강한 것’이라는 서사를 부여한다. 공간에 나이트 처럼 쌓인 세월의 흔적들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은 부연 설명 없이도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연출 또한 노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요소다. 1부에서는 촬영 팀이 직접 이발을 위해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5부에서는 그 지역을 50년 이상 살아온 토박이의 안내를 받는다. 〈한국기행〉은 자연스레 그 이야기의 일원이 되는 것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노포가 겪었던 그 시절의 어려움이나 소중함을 구구절절 부연하지 않아도, 수십 년 단골의 등장이나 노부부가 자식을 키워낸 공간이라는 서사에서 자연스레 묻어 나온다. 노포라는 소재를 단순 호기심으로 소비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제작진이 직접 연결의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러한 연출 덕에 일상의 풍경들이 겹겹이 제시되고 이방인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생활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때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은가. 어려운 세월을 겪고 굳건하게 일상을 버틴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불안은 자연스레 해소되고 사회적 신뢰는 쌓인다. 이것이 연결의 힘이며 이를 서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곧 〈한국기행〉이 가진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가 쌓여 연대기가 된다: 일상적 경험을 발굴하는 것의 중요성

일상을 모아 기어코 한 시대를 만들어낸 곳, 노포. <한국기행>은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발굴하고, 나이테처럼 새겨진 공간을 해석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매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재확인된다.

흔히 인생은 밀바탕과 채색이 분리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하루 하루의 조각보를 모으는 일에 가깝다고 비유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상투적인 해피 엔딩을 목격할 때가 아니라, 하루가 그려내는 생동한 풍경을 자각하면서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기행>의 성실성은 프로그램을 더 반짝이게 하는 요소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을 쌓아 시대를 살아내는 일과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길지 않은 러닝타임이지만 하루를 성실하게 기록해 온 프로그램은 ‘노포 시리즈’ 5부를 포함해 어느덧 700건의 에피소드가 누적되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특별한 소망이 된 시대에서, 결국 반세기를 넘게 살아낸 노포의 역사와 <한국기행>이 사회를 바라보려는 제작진의 의도는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일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삶을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연대를 구축하고 과거를 미래에 전승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최근 우리 사회에 스토리텔링은 넘쳐나나 정작 이야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책 『서사의 위기』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만드는 미래 서사가 결핍되어 있다. 서사는 맥락이 있는 삶을 다루지만 스토리는 끊임없이 등장하되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질 뿐이다.³ 그 문제의식은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도 대입할 수 있는데,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던 서사가 방송에서 실종되고, 휘발되는 스토리만 가득한 현실에서 ‘경험의 빈곤’이라는 위기가 등장한다.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꾸며졌지만 자극을 반복하는 스토리들은 결국 사회를 파편화할 뿐이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기행〉과 같은 휴먼다큐멘터리의 존재가 새삼 소중해진다. 일상을 재현하는 매개체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사는 ‘카피’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길고 느리게 조망하는 시선은 진정성을 담보한다. 그 진정성에서 마음이 오고 간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야기의 중요성이다.

글을 나가며

한편,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의 노포가 처한 어려움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은 〈한국기행〉을 마음 편하게만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실제로 40년의 업력을 자랑하던 을지로의 한 노포는 ‘노가리 골목’ 문화를 만들어 사람을 불러들였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결국 쫓겨나듯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던 가게들이 점점 설 곳을 잃어도, 그 골목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포의 성지’로 불리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다.

3 한병철, 『서사의 위기』(다산초당, 2023), 7~17쪽.

“백년의 문화는 자영업자의 고집만으로 만들 수 없다. 도시의 공동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토대와 법, 제도 없이 백 년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⁴ 센트리피케이션에 맞서 거리의 가게들과 연대해 왔던 활동가는 말한다. 그 ‘공동 기억’을 발굴하는 것이 〈한국기행〉의 역할이라면 현실의 노포의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화면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노포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의 위기가 우리 모두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한국기행〉이 발굴한 노포의 메시지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좋은 서사의 종착지가 외로운 사회에서 다른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행〉의 두드림은 꼭 충분했다. 일상의 소중함과 휴먼다큐멘터리의 힘을 믿는 시청자로서 EBS의 〈한국기행〉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 곁을 오랫동안 지켜주길 바란다.

4 이종건, “이종건의 함께 먹고 삼시대 세기를 건디는 가게”, 《한겨레신문》, 2023.9.21.